

# KIPO NEWS

## 아이돌 가수의 명칭, 상표 출원 브랜드화 바람분다!

최근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소녀시대” 등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는 소속사들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그룹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한류열풍을 선도해 오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4건, 2008년에 17건이었으며, 2009년 138건, 2010년에는 23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 명칭(멤버 포함)의 상표출원 순위를 살펴보면, “소녀시대”가 7건으로 1위를 하였고, “동방신기”가 47건으로 2위이며, 이어서 “에프엑스”, “천상지희”, “보아”, “샤이니”, “트랙스”, “슈퍼주니어”, “나인뮤지스”, “미쓰에이”, “2AM”, “2PM”, “설리”, “원더걸스” 등이 그 뒤를 이어 출원하였다.

또한, 출원관련 지정상품으로는 MP3, 녹음기, 음반, CD플레이어, 음

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테이프 등 음악관련 상품과 향수, 스킨로션, 콜드크림, 미용비누 등 화장관련 상품 그리고 의류, 셔츠, 신발, 모자, 액세서리, 가방, 시계, 벨트와 운동용품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돌 가수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인기에 따른 스타들의 명칭이 강력한 “브랜드파워”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여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명탄 없이도 야간추적 이상무, ‘발광지뢰’ 대상 수상

특허청과 국방부가 공동 개최하는 「2011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대상(국방부장관상)에 지뢰의 파편 대신 발광액을 분사하여 적군을 찾아내는 육군 특전사 이문희 중사의 ‘발광지뢰’가 선정되었다.

동 발명품은 반딧불이의 생물발광에서 착안하여 지뢰에 힘이 가해졌을 때 파편 대신 발광액을 적에게 분사하는 장치로서, 비살상형이며 야간작전 시 조명탄 없이도 적 추적 및 경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금상인 특허청장상(3개)과 육군참모총장상(2개)에는 공군 8전투비행단 안성도 원사의 ‘항공기 연료수분탐지용 전자식 장비’를 비롯하여, 해군 2함대 정종대 군무원, 육군 특전사 정성 상병, 육군 향작사 최동민 중령, 육군 22사단 홍종팔 대위 등의 발명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에서 총 66점의 발명품이 선정되었다.

‘군장병 발명경진대회’는 장병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체제를 통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는 등 21세기형 지식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군 발명경진대회이다.

대상(국방부장관상) 육군 특전사 중사 이문희, 발광지뢰

발명품

설명



- 반딧불이의 생물발광에서 착안하여 지뢰 내부에 발광 물질을 넣고 지뢰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에 반응하여 신관폭발/압축가스 분사방식 등을 이용하여 발광액을 적에게 도포하게 하는 장치
- 일반지뢰와 달리 비살상형 지뢰로써 작전의 효과/안전성을 추구
- 일반적인 전술훈련의 교보재로 사용하며, 주·야간에 국지도발 등 적에 대한 추적이나 경계근무, 위병소 근무 시 적에 대한 위협성 경고용으로 활용가능

# KIPO NEWS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인하대 등 3개 대학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운영예정인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인하대, 전남대, 강원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1월 17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은 창의력과 공학전문지식, 지식재산 역량을 고루 갖춘 지식재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에는 내년부터 대학당 매년 1억 5천만 원을 5년 동안(총 7억 5천만 원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12년부터 지식재산 교육 전담교수를 확보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공학과 지식재산 융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전문 지식의 바탕위에 지식재산 중심의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특징을 보면 인하대는 운영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강좌 수가 가장 많고 대학발명활동의 실적이 탁월하며, 전남대는 20개의 강좌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교육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강원대는

지식재산 융합 전공과정에 대한 계획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 짜퉁 전기매트 유통 '소비자 생명 위협'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보조난방 제품으로 전기매트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짜퉁' 전기매트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1월 2일 국내 유명회사의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켜 온 조○○(56)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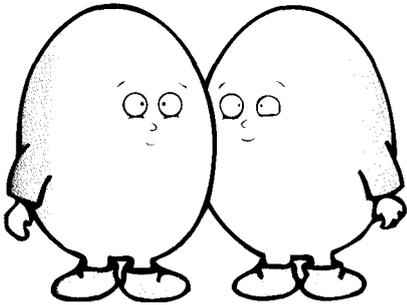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 5천만원)을 제조하여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캐릭터 모방 디자인 더 이상 설 곳 없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TV 만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인형 디자인 등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원래 캐릭터의 특징을 일부 변형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모방 출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유명한 캐릭터를 부정하게 모방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를 거절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 미취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체 취업교육 지원

특허청은 미취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관련 서비스업체로 채용을 유도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 수료생의 70%가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서비스는 기업,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특허기술의 평가 및

거래, 특허경영 컨설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취업에 성공한 한 교육생은 “하루 8시간의 합숙 교육이 힘들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졸업 후 불안한 진로 방향의 설정에도 큰 도움을 받았으며, 드디어 취업에도 성공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 한·중 지재권분야 교류·협력 전면확대

1992년 11월 한국과 중국이 최초로 제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한

이후 20년을 맞아 지재권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티안리푸(TIAN Lipu(田力普)) 중국 특허청장과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의 2010년도 특허출원은 약 39만 건으로 일본을(약 34만 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G2로 부상한 만큼,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공 특허청

